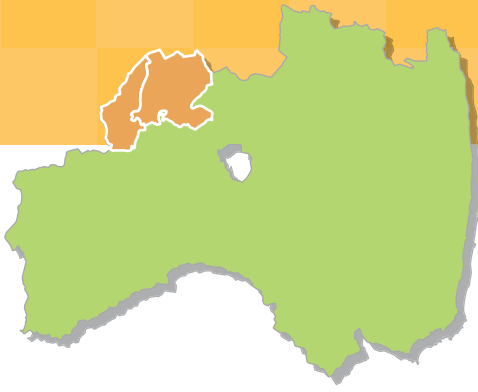


# Kitakata 키타카타



곳간(창고)의 마을, 키타카타. 하얀석회벽이나 붉은색벽돌의 외관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풍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며, 현재는 이것들이 창고형으로 지은 가게 또는 술보관창고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중에는 내부건축이 가능한 창고도 있다.

키타카타는 일본3대 라면중 하나인 키타카타라면의 고향이기도하며, 각가게 나름대로의 라면맛을 음미할 수 있다



❖ 신쿠마노신사 나가토코【키타카타시】  
2242후쿠시마현 키타카타시 케이토쿠마치 신쿠아자 쿠마노



❖ 키타카타 타이코(북)다이축제【키타카타시: C2】  
매년8/13 ~ 16에 개최



❖ 이이데산【키타카타시】  
후쿠시마현 키타카타시 쿠마구리마치 오구니로부터 보이는 풍경.



❖ 시오카와 풍선 페스티벌【키타카타시】  
닛비스가와 녹지공원 자유광장에서, 매년 10월 제3토, 일요일에 개최.



❖ 키타카타라면 【키타카타시】  
깨끗하고 맑은 물과 양조의 마을인 키타카타산 간장을 사용해서 깊은 맛을 내는 스프에 굵고 곱슬거리는 면이 특징인 키타카타라면. 심려를 기울여서 잡은 어패류의 스프는 그윽한 향기에 맛있고 산뜻한 풍미. 부드럽게 졸인 자가제 차슈(돼지고기편육조림)도 매력적.

❖ 우루시(옷)미술관 【키타카타시: C4】  
관내에는 느티나무, 옷걸로 만든 여러가지 옷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2층에서는 옷체취도구나 철기만드는 도구를 작업공정에 따라 전시하고 있으며, 옷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시키(일본식 객실)에서는 철기를 제조해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향토물품에 준하는 많은 공예품이 마련되어 있어, 양질의 옷과 투철한 작업정신이 뒷받침된 전통의미를 즐길 수 있다.  
● 후쿠시마현 키타카타시 히가시마치4095 반에츠사이선 키타카타역에서 택시로 5분



❖ 곳간(창고) (키타카타 곳간의 마을) 【키타카타시】  
키타카타시의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곳간은, 현재에도 양조창고나 저장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금도 시민생활의 문화가운데서 살아있다.  
또한 붉은 벽돌이나 석회로 지은 개성적인 곳간이 다수 존재하여 그 유니크한 경관을 산책하며 즐길 수 있다. 키타카타 곳간의 마을이나, 미즈야집락, 카이혼체 등 약 4100개 이상의 곳간이 줄지어 서있다.  
● 후쿠시마현 키타카타시 오시키리2-109 반에츠사이선 키타카타역에서 택시로 5분

❖ 일일술 【키타카타시】  
키타카타시에서는 풍부한 이이데의 복유수를 사용해서 일일술을 주조하는 10곳의 주조원이 있다. 주조원에서는 견학이나 술의 시음이 가능한 장소도 마련되었으며, 거기서 마을에 드는 술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일일술뿐 아니라 쌀로 만든 소주 또는 메실주등을 만드는 주조원도 있어, 자기자신만의 좋아하는 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호마레주조, 야마토가와주조, 오히라주조등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술창고가 있다

